

상상 접촉이 이성에 대한 호감 및 매력 지각에 미치는 영향

허 용 희 김 세 현 박 선 웅[†]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상상 접촉이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성에 대한 호감 및 매력 지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 그 효과가 지각자 자신의 신체적 매력 혹은 외모중시 성향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연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성 대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신체적 매력 수준과 외모중시 성향을 묻는 문항에 답하였다. 상상 접촉 조건의 참여자들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초면의 이성과 직접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하였고,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은 대화와 관련된 맥락이 배제된 채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에 대해 상상하였다. 이후 모든 참여자들은 신체적 매력이 다소 낮은 여성의 사진을 접한 뒤, 3개의 종속 변인 문항들(호감 지각, 매력 지각, 데이트를 신청할 의향)에 답하였다. 연구 결과, 상상 접촉을 했던 참여자들은 통제 집단의 참여자들에 비해 여성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보였고 매력 정도도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상상 접촉이 이성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상 접촉의 효과는 참여자들의 신체적 매력의 정도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지만, 외모를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의해서는 조절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상 접촉의 효과는 비교적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상상 접촉 이론의 적용 범위를 이성 관계의 맥락으로 확장시켰다는 점, 그리고 기존 상상 접촉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인차 변인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접촉 이론, 상상 접촉, 신체적 매력, 외모중시 성향

[†] 교신저자 : 박선웅,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 02-3290-2868, E-mail : sunwpark@korea.ac.kr

“예쁜 애들은 눈망울도 큰데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안 좋다.” 2014년 4월 초, 수원에 사는 한 17세 여고생이 스스로의 외모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고층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다(경기일보, 2014).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 풍조 속에서, 외모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비판하는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매스 미디어에서는 외모가 수려한 연예인들이 연일 등장하여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노혜정, 김은이, 2011; 임의택, 2011; 임인숙, 2007).

이런 외모지상주의는 ‘성형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4년에 발간된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시행된 성형 수술은 총 980,313건으로, 조사대상국 95개국 가운데 미국, 브라질, 일본에 이어 4위에 해당하였지만, 인구비례로는 1위에 해당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외모에 대한 집착이 뛰어난 외모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임인숙, 2004; Dipboye, Arvey, & Terpstra, 1977).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사망 사건 기사 내 실린 피해자의 사진 속 외모 수준이 낮을수록 사건이 덜 비극적이라고 인식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보다 관대하였다(Callan, Powell, & Ellard, 2007).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외모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뛰어난 외모의 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상상 접촉(imagined contact)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절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

상 접촉이란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없는 외집단 대상과의 접촉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으로, 외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Turner & Crisp, 2010). 상상 접촉은 대상과의 실제적인 접촉 없이 단지 ‘상상해보는 과정’만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전략이므로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함에 있어 매우 경제성이 높다. 만약 상상 접촉과 외모 지각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이 확인된다면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인식들에 대응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지난 수십 년 간 매력적인 외모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되어 왔다. 신체적 매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교성, 이타성, 지적 능력, 유능함, 배려 등의 긍정적인 특질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Adams, 1977; Blöte, Miers, & Westenberg, 2015; Dion, Berscheid, & Walster, 1972; Eagly, Ashmore, Makhijani, & Longo, 1991; Goldman & Lewis, 1977; Miller, 1970).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는 구직 활동이나 학업, 직장 등 여러 사회적 상황들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판매원이 신체적 매력이 낮은 판매원에 비해 보다 친절하고, 유능할 것이라 여겼으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판매원의 물건에 대해 더 높은 구매의도를 나타냈다(윤성욱, 설상철, 황경미, 2003). 또한 면접 상황을 연출한 연구에서 면접관 역할을 맡았던 실험 참여자들은 외모

가 매력적이지 못한 구직자들에 비해 외모가 매력적인 구직자들에 대해 더 높은 고용 의사를 나타냈으며, 고용 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Dipboye et al., 1977).

한편 Griffin과 Langlois(2006)는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의 소유자들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이들에 비해 단지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인지, 아니면 외모에 대한 편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각종 사회적 상황에서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예비 조사 과정을 통해 매력적인 외모의 인물, 평범한 외모의 인물,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은 인물 사진을 각각 6장씩 준비한 뒤(총 18장) 참여자들에게 하나씩 무작위로 제시하고, 각 사진 속 인물의 사교성, 이타성, 유능함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신체적 매력이 높은 이들이 가장 사교적이며, 유능하고, 지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신체적 매력이 낮은 이들은 보통의 외모를 소유한 이들보다도 덜 사교적이며, 덜 유능하고, 덜 지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신체적 매력이 낮은 이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들보다도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는 각종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낮은 수준의 외모 만족도는 낮은 자존감(이지은, 어성연, 정인경, 김정현, 2012; 정익중, 이지인, 2010), 높은 우울감(이승연, 박영숙, 2008; 채진영, 2012), 높은 취업 불안(한주원, 2015)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의 소유자는 친구 및 부모와의 관계의 질도 낮고 학업 문제 역시 가지고 있었다(오선영, 2013).

또한 정명숙과 이규옥(2009)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외모 만족도가 낮을수록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교 적응 수준은 낮았으며, 둘 사이의 관계를 자존감이 매개하였다. 즉 낮은 외모 만족도는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었고, 낮은 자존감이 낮은 수준의 학교 적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요컨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이들은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갖가지 이점들을 누리는 반면,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를 가진 이들은 남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여러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들을 지니기 쉽다.

한편 매력적인 외모의 영향력은 이성 관계의 맥락에서도 유효한데, 신체적 매력이 높을수록 이성으로부터 더 높은 호감을 얻었고(Kleck & Rubenstein, 1975; Seidman & Miller, 2013; Stroebe, Insko, Thompson, & Layton, 1971; Walster, Aronson, Abrahams, & Rottman, 1966),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과의 데이트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Berscheid, Dion, Walster, & Walster, 1971). 그러나 이성의 외모와 호감 지각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호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이성애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Insko & Wilson, 1977; Sprecher & Duck, 1994).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를 가진 이들과의 접촉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 관계에서의 접촉의 긍정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력 수준이 낮은 이성과 상상 속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접촉 이론

외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Allport (1954)는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접촉 가설에 따르면, 지각자와 외집단 대상이 직접 물리적으로 접촉한 뒤 의사소통이나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진하는 등 상호 교류과정이 수반되면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유도될 수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다는 의향 역시 높아질 수 있다 (Amir, 1969; Dixon, Durrheim, & Tredoux, 2005; Gaertner, Rust, Dovidio, Bachman, & Anastasio, 1994; Pettigrew & Tropp, 2006). 접촉 과정이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외집단과의 접촉 및 교류를 통해, 접촉 이전에 예상되었던 불안 수준이 감소하고, 불안 수준의 감소가 곧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매개 모형이 유의미함을 밝혀내기도 하였다(Paolini, Hewstone, Cairns, & Voci, 2004; Turner, Crisp, & Lambert, 2007).

하지만 외집단과의 접촉과 상호작용, 그리고 긍정적 인식 고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반드시 물리적인 형태의 접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확장된 접촉(extended contact)에 관한 연구들은 지각자가 외집단 대상과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단지 내집단 내 타 구성원이 외집단 대상과 친분이 있다는 정보만 접하더라도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Cameron, Rutland, Brown, & Douch, 2006; Paolini et al., 2004; Wright, Aron, McLaughlin-Volpe, & Ropp, 1997).

이렇듯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발

하는 기제로서 접촉 이론 및 확장된 접촉 이론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그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접촉 이론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한 문제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에서 외집단 대상으로 다루어진 무슬림이나 소수 민족, 성적 소수자 등과 일상에서 실제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Phinney, Ferguson, & Tate, 1997; Turner, Hewstone, & Voci, 2007). 무슬림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무슬림과 직접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면 이슬람 사회, 무슬림 집단과 동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접촉 이론의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확장된 접촉 방식의 경우에도 비록 물리적인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접촉 이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내집단 대상이 외집단 대상과의 직접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접촉의 기회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Turner & Crisp, 2010).

상상 접촉 이론

이러한 한계 때문에 Turner, Crisp 등(2007)은 상상 접촉 이론을 제안하였다. 상상 접촉이란 직접적 만남이 발생하거나 외집단과 내집단 간 교류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는 등의 과정 없이 마음속으로 대상과의 접촉 및 교류 과정을 상상해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상 접촉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상상 접촉 과정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상 접촉을 실행한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소수 민족들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들과 실제로 접촉할 의향 역시 높았다(Husnu & Crisp, 2010b; Stathi & Crisp, 2008). 뿐만 아니라 상상 접촉은 노인(Turner & Crisp, 2010), 장애인(Cameron, Rutland, Turner, Holman-Nicolas, & Powell, 2011),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봉민, 2012) 등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Stathi와 Crisp (2008)는 외집단과의 상상 접촉 이후, 지각자가 인식하는 외집단과 자기 자신 간의 유사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긍정적 특성들(논리적임, 대담함, 유능함, 관대함, 덜 이기적임 등)을 외집단 대상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Turner와 West(2011)는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된 상상 접촉의 효과가 행동적 차원에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들의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실험 조건(상상 접촉 조건) 및 통제 조건에 따라 조작된 상상 절차를 마친 후, (상상 접촉의 대상이 되었던) 비만인 다른 참여자(실험 1), 무슬림인 다른 참여자(실험 2)와 직접 면대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설명을 실험 진행자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구석에 의자가 쌓여 있는 빈방으로 안내된 참여자들은 실험 진행자로부터 곧 방에 들어올 다른 참여자와의 면대면 대화를 나눠야 하므로 방의 구석에 비치된 의자들 가운데 두 개를 가져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이 배치한 외집단 대상이 앉을 의자와 참여자 자신이 앉을 의자 간의 거리를 측정, 이를 종속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 집단에 비해 상상 접촉을 시행했던 집단의 사람들이 배치한 두 의자 간 간격이 더 가까웠는데, 이는 외집단 대상에 대한 편견이 상상

접촉을 통해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상상 접촉 조작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무선적으로 실험 집단(상상 접촉 조건)과 통제 집단에 배정된다. 실험 집단의 경우 무슬림이나 노년층, 성적 소수자 등 (참여자가 외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대상과 직접 만나 교류하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상상해보도록 안내받되, 교류 과정에서 해당 인물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나 흥미로웠던 일, 혹은 긍정적인 점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과정을 거친다(Crisp, Stathi, Turner, & Husnu, 2009; Turner & Crisp, 2010; Turner, Crisp et al., 2007). 이러한 상상 접촉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과의 상호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과 긍정적 어조이다(Crisp et al., 2009; Turner & West, 2011). 즉 상상 접촉 절차는 단순히 대상과의 접촉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 이후 대화나 공동 활동 등의 교류가 포함되고, 교류의 과정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Stathi와 Crisp(2008)는 긍정적 어조가 상상 접촉의 지시문에 포함된 경우, 중립적 어조로 유도된 상상 접촉 조건에 비해 더 높은 편견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상상 접촉에 긍정적 어조를 포함시키는 것이 그 효과성을 위해서는 보다 바람직하다(Turner & Crisp, 2010).

통제 집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험 집단과 동일한 인지 부하량(cognitive loading)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들로 하여금 접촉 맥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해변이나 숲, 나무 등 바깥 풍경에 관해 상상해보도록 안내되었다(이봉민, 2012; Turner & Crisp, 2010; Turner, Crisp et al.,

2007). 다른 연구에서는 외집단 대상과의 긍정적인 교류 없이 단지 외집단 대상 자체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즉 실험 집단과 동일한 외집단 대상을 상상해보도록 하되 대상과의 교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시가 이루어졌다(Turner & Crisp, 2010). 이러한 처치는 어떤 대상을 상상한 후 평가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요구특성(demand characteristics)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상 접촉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던 종속변인들의 종류는 다양하다. 여러 연구에서 따뜻함, 믿음직함, 친절함 등의 항목들에 대한 평정으로 편견의 정도를 측정하였다(Stathi & Crisp, 2008; Turner & Crisp, 2010). 다른 연구에서는 외집단 대상과 교류할 의향(Husnu & Crisp, 2010a)이나 외집단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Turner, Crisp et al., 2007) 등이 종속변인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Turner와 Crisp(2010)는 상상 접촉 이후 대상에 대한 외현적(explicit) 태도뿐 아니라 암묵적 연합검사(Greenwald, McGee, & Schwartz, 1998)를 통해 측정된 암묵적(implicit) 태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고, 상상 접촉 후 두 가지 태도 모두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상상 접촉의 효과가 이성 관계의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잠재적 조절변수로서의 지각자의 신체적 매력과 외모중시 성향

상상 접촉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상상 접촉이 편견 감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

였으나, 이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상상 접촉 여부를 조작하여 상상 접촉이 이성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확인하는 한편, 외모와 관련된 두 가지 변인(지각자의 신체적 매력과 외모중시 성향)을 잠재적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여, 상상 접촉의 영향이 이 변인들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맞춤 가설(matching hypothesis; Walster et al., 1966)에 따르면 사람들은 연애 상대를 선택할 때 자신과 신체적 매력의 수준이 유사한 대상을 선호한다. 즉 상대 이성의 신체적 매력과 자신의 신체적 매력 간 유사성에 대한 지각이 이성에 대한 인식에 개입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맞춤 가설에 관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외모가 매력적인 이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Berscheid et al., 1971; Feingold, 1988; Folkes, 1982; Price & Vandenberg, 1979; Taylor, Fiore, Mendelsohn, & Cheshire, 2011; Walster et al., 1966). 이렇게 지각자의 외모가 이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상상 접촉의 효과가 스스로의 신체적 매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상상 접촉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은 외모중시 성향, 즉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얼마나 중시하는지이다. 외모중시 성향이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덜 행복했고(박정현, 서은국, 2005), 더 우울했다(이승연, 박영숙, 2008). 하지만 무엇보다도

외모중시 가치관은 이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외모중시 성향이 강할수록 잠재적 연애 상대로서 이성을 평가할 때 성격이나 공통의 관심사 등보다 외모와 날씬한 체형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중간 정도의 외모중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이 등장하는 마스크 영상을 시청한 경우,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던 통제 조건에 비해 여성의 외모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greaves & Tiggemann, 2003).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상상 접촉의 효과는 외모중시 성향이 강한 집단보다는 외모중시 성향이 약한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상상 접촉과 신체적 매력, 외모중시 성향이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의 여성에 대한 인식(호감 지각, 매력 지각, 데이트 신청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여성의 외모에 민감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Botwin, Buss, & Shackelford, 1997; Buss & Barnes, 1986; Buss & Schmitt, 1993; Feingold, 1991; Sprecher, Sullivan, & Hatfield, 1994; Stroebe et al., 1971)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성으로 한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 수준과 이성을 볼 때 외모를 중시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에 응답하였고, 상상 접촉 여부에 따라 구성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상상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평균적인 여성들에 비해 신체적 매력이 낮은 여성의 사진을 보고, 해당 여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상상 접촉을 한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에 비해 신체적 매력이 낮은 여성에게 더 높은 호감을 갖고, 매력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며, 데이트 신청 의향 역시 높으리라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다. 이러한 상상 접촉의 효과가 개인차 변인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여부는 기존 연구에서는 탐구되지 않은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이성 관계에서 외모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잠재적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참여자

현재 연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자 대학생들($n = 127$)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된 실험 참여자 모집 광고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에서 게시된 사진 속 여성과 아는 사이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거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2명의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극물로 활용된 4명의 여성 사진 중 특정 1명에 대한 평가가 다른 3명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 다른 조건과의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사진을 제시 받았던 참여자 27명의 자료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98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3.09세($SD = 2.87$)였으며, 범위는 18세에서 35세였다.

연구 절차

실험 시작에 앞서, 실험 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금일 시행하는 실험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종류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성격과 상상력’이라는 연구가 끝난 후 다른 연구와 관련된 예비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받았다. 참여자들은 실험실에 비치된 컴퓨터 앞에 앉아 여러 설문지에 응답하였는데, 가상의 실험 제목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자 성격 특성에 대한 문항들이 앞서 배치되었다. 다음으로 실험 참여자들은 상상 접촉 유무에 따라 실험 집단(상상 접촉을 시행)과 통제 집단(상상 접촉을 시행하지 않음)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어 각 조건에 대한 안내를 따랐다. 이후 실험 진행자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개인의 성격과 상상력’에 관한 실험이 종료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의 예비 조사에 참여해줄 것을 안내 받았는데,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실제 종속변인 문항들이 포함된 절차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속변인 측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요구 특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Turner & Crisp, 2010; Turner, Crisp et al., 2007).

종속변인 측정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신체적 매력 하위 15-30%에 해당하는 4장의 사진 가운데 1장이 무작위로 각 실험 참여자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사진을 본 참여자들은 사진 속 여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3문항(호감 지각, 매력 지각, 데이트를 신청할 의향)에 대해 응답하였다.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은 사진 속 인물과 아는 사이인지를 묻는 문항과 연구의 실제 목적을 묻는 문항들에도 응답하였다. 실험이 끝나고 모든 실험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의 실제 목적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연구의 실제 목적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들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의 실제 목적에 근접한 참여자는 없었다.

실험 및 측정 도구

신체적 매력 및 외모중시 성향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 수준을 묻는 문항(“다른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신체적 매력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관해 10점 척도(1 = 하위 0~10%, 10 = 상위 0~10%) 상에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적 매력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참여자들은 이성을 만날 때 외모를 중시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귀하는 이성을 볼 때, 외모를 어느 정도 중요시하십니까?”)에 관해 7점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 매우 중요하다) 상에서 응답하였다.

상상 접촉 조작

참여자들은 상상 접촉을 수행할 실험 집단과 상상 접촉을 수행하지 않을 통제 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실험 집단의 경우,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은 이성을 상상하되 해당 여성과 직접 대화하면서 발견한 예상치 못했거나 흥미로웠던 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 2분 간 상상하도록 아래처럼 안내받았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초면인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상에 관한 지시에 ‘시간이나 ‘장소’ 등 구체적

대화를 나누는 도중 해당 인물에 대해 느낀 몇몇 흥미롭고 긍정적인 점들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통제 집단의 경우, 실험 집단과 마찬가지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을 상상해보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상상 접촉 조건과 달리 대화나 인물에 대한 느낌 등에 관해서는 안내를 받지 않았다. 통제 조건의 실험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으며, 상상 접촉 조건과 동일하게 약 2분 동안 상상하였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종료된 후 모든 참여자들은 약 2분간, 모니터 화면상에 제시된 빈 공간에 자신이 상상했던 내용들을 기억나는 대로 자유롭게 작성해보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상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Crisp et al., 2009).

여성에 대한 호감 지각, 매력 지각 및 데이트 신청 의향

본 연구의 목적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므로 연구 자극물 선정을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의 지인을 통해 총 76장의 여성 사진이 제공자들의 동의하에 수집되었으며, 이후 연구의

목적은 알지 못하는 7명의 평정자들로 하여금 각 사진 속 여성들의 신체적 매력 수준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정자들은 각 사진 속 인물의 신체적 매력 수준이 평균적인 다른 여성들에 비해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들에 대해 9점 척도 상으로 응답하였다(4 = 평균보다 아주 낮음, 0 = 평균과 비슷함, 4 = 평균보다 아주 높음). 신체적 매력 평정에 대한 평정자 간 일치도는 .92였다. 각 사진 별로 부여된 평균값을 산출한 후, 상위 15-30%에 해당하는 사진 4장을 선별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각 참여자들에게 4장 가운데 1장의 여성 사진을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여러 장의 사진을 선별한 까닭은 본 연구의 결과가 상상 접촉이나 자신의 신체적 매력, 혹은 외모중시 성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험에서 제시된 특정 여성 사진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선호로부터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참여자들은 상상이 끝난 후 1장의 여성 사진을 보았고, 사진 속 인물에 대한 다음의 3 문항에 응답하였다. (1) 사진 속 여성에게 얼마나 호감을 느끼십니까? (2) 사진 속 여성은 얼마나 매력적인 여성이라 생각하십니까? (3) 사진 속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시겠습니까? 각 문항은 7점 척도로서 높은 점수가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세 개의 각 종속변인 문항과 더불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평균 내어 '여성에 대한 끌림'이라는 통합 변인을 또한 생성하였고, 이를 본 연구의 추가적인 종속변인으로 활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1).

결 과

인 맥락을 포함시키면 상상 접촉의 생동감(vividness)이 증가하고, 생동감의 증가가 곧 상상 접촉 효과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Husnu & Crisp, 2010a), 본 연구에서도 상상 접촉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하여 상상해보도록 하였다.

예비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실험에서 사용된 4개의 사진이 참여자들로부터 비슷한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였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원변량분석 결과 사진 4가 다른 3개의 사진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진 4는 다른 사진들과 동일한 수준의 매력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향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상상 접촉 조건의 참여자 및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이 기술한 상상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상상 접촉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상상 접촉 조건의 참여자들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여성과 긍정적인 교류를 나누는 과정을 상상하였으며(예, “저는 제 친구가 불러서 어느 술자리에 갔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 분과 계속 얘기하다보니 말이 많고 재밌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 많고 재미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분과 잘 맞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학업에도 충실하며 놀 때는 노는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은 단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상상했을 뿐, 해당 여성과의 교류 과정을 상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예, “코가 뭉툭하며 콧대가 높지 않다. 눈은 맑지 않고 축 처져서 힘과 초점이 없다. 피부는 이러 저러

한 잡티가 많으며 화장을 질게 하여 가리려 한다. 하지만 제대로 가려지지 않아 화장이 못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 듯하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분석 결과,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높이 평가할수록 이성을 볼 때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r = .29$). 그리고 외모중시 성향은 여성에 대한 호감 지각($r = -.22$) 및 매력 지각($r = -.2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인 나이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상상 접촉, 신체적 매력 및 외모중시 성향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상상 접촉 여부에 따른 집단별 나이, 신체적 매력 및 외모중시 성향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고자 독립 t검증을 수행하였다(표3 참고). 분석 결과, 상상 접촉을 시행했던 조건과 통제 조건 간 나이, 신체적 매력, 그리고 외모중시 성향 평균값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세 가지 변인이 상상 접촉을 시행했던 조건과 실행하지 않았던 조건 간 차이가 없이 골고루 분포되었음을 가리킨다.

표 1. 각 사진 조건별 종속변인 문항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사진별 평균 (표준편차)				F	p	Tukey HSD
	사진 1 (n = 33)	사진 2 (n = 31)	사진 3 (n = 34)	사진 4 (n = 27)			
여성에 대한 끌림	3.77 (0.99)	3.67 (1.28)	3.85 (1.03)	2.88 (0.92)	5.09	.002	1,2,3 > 4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나이	-						
2. 신체적 매력	.01	-					
3. 외모중시 성향	-.01	.29**	-				
4. 호감 지각	.02	-.11	-.22*	-			
5. 매력 지각	.05	-.10	-.25*	.82***	-		
6. 데이트 신청 의향	-.05	-.03	-.04	.50***	.49***	-	
7. 이성에 대한 끌림	.01	-.09	-.19	.89***	.88***	.79***	-
평균	23.09	6.06	4.78	3.97	4.24	3.08	3.77
표준 편차	2.87	1.84	1.12	1.26	1.19	1.39	1.09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표 3. 실험 조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독립 t검증 결과

	상상 접촉 여부		<i>t</i>
	시행 ($n = 54$)	미시행 ($n = 44$)	
나이	23.60 (3.14)	22.50 (2.41)	-1.87
신체적 매력	6.02 (1.83)	6.11 (1.88)	0.25
외모중시 성향	4.69 (1.11)	4.89 (1.13)	0.89
호감 지각	4.20 (1.12)	3.68 (1.36)	-2.08*
매력 지각	4.46 (1.11)	3.98 (1.25)	-2.04*
데이트 신청 의향	3.30 (1.40)	2.82 (1.35)	-1.71
이성에 대한 끌림	3.99 (1.00)	3.49 (1.16)	-2.28*

* $p \leq .05$.

총 4개의 종속변인(호감 지각, 매력 지각, 데이트 신청 의향, 이성에 대한 끌림)에 대하여 상상 접촉 여부에 따른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데이트 신청 의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변인에 있어 상상 접촉 조건의 참여자들이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력적이지 못한 이성과의 상상 접촉이 이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상 접촉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가설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상상 접촉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신체적 매력 혹은 외모중시 성향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신체적

표 4. 종속변인 문항들에 대한 상상 접촉과 신체적 매력, 상상 접촉과 외모중시 성향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종속 변인	상상 접촉 × 신체적 매력			상상 접촉 × 외모중시 성향		
	독립 변인	β	p	독립 변인	β	p
호감 지각	상상 접촉	.21	.044	상상 접촉	.19	.049
	신체적 매력	-.10	.316	외모중시 성향	-.18	.065
	상상 접촉 × 신체적 매력	.01	.933	상상 접촉 × 외모중시 성향	-.20	.038
매력 지각	상상 접촉	.20	.048	상상 접촉	.19	.056
	신체적 매력	-.09	.382	외모중시 성향	-.22	.027
	상상 접촉 × 신체적 매력	-.03	.775	상상 접촉 × 외모중시 성향	-.21	.029
데이트 신청 의향	상상 접촉	.17	.095	상상 접촉	.17	.089
	신체적 매력	-.02	.815	외모중시 성향	-.01	.962
	상상 접촉 × 신체적 매력	.03	.775	상상 접촉 × 외모중시 성향	-.15	.132
이성에 대한 끌림	상상 접촉	.22	.027	상상 접촉	.22	.029
	신체적 매력	-.08	.421	외모중시 성향	-.15	.125
	상상 접촉 × 신체적 매력	.01	.960	상상 접촉 × 외모중시 성향	-.22	.025

매력과 외모중시 성향 변인을 평균 중심화 (mean centering)한 후 상상 접촉 변인(상상 = +1, 통제 = -1)과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고 두 가지 이원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변인들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먼저 상상 접촉과 신체적 매력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상상 접촉이 갖는 효과는 지각자의 신체적 매력 정도에 관련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상상 접촉과 외모중시 성향 사이의 상호작용은 데이트 신청 의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편차 ± 1 지점에서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Aiken & West, 1991), 세 변인 모두에

서 상호작용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합변인인 이성에 대한 끌림 변수를 예로 들어 보면(그림 1), 외모중시 성향이 낮았을 때는 상상 접촉과 이성에 대한 끌림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beta = .44$, $p = .002$. 즉 외모중시 성향이 낮은 이들은 상상 접촉을 시행한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이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그러나 외모중시 성향이 높을 경우에는 상상 접촉과 이성에 대한 끌림 간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01$, $p = .96$. 나이를 통제한 후에도 변인들의 유의미성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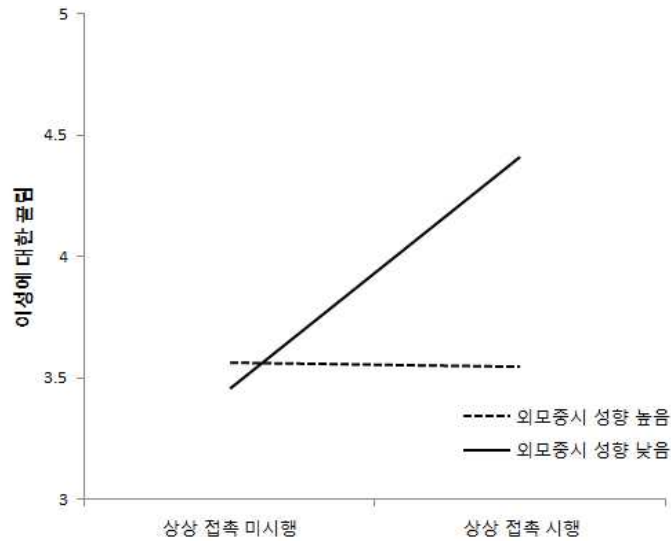


그림 1. 상상 접촉 및 외모중시 성향이 이성에 대한 끌림에 미치는 영향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과의 상상 접촉이 해당 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가 지각자의 신체적 매력 혹은 외모중시 성향에 의해 조절되는지 탐구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신체적 매력이 다소 낮은 이성을 상상하되 해당 이성과 대화를 나누며 흥미롭고 예상치 못했던 점들을 상대로부터 발견하는 과정을 상상하였던 참가자들(상상 접촉 조건)이, 상대방과의 교류에 관한 맥락 없이 단지 신체적 매력이 낮은 이성에 대해서 상상하였던 참가자들(통제 조건)보다, 낮은 신체적 매력의 이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상상 접촉은 이성에 대한 호감 수준을 높이고, 이성을 보다 매력적인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 접촉의 긍정적인 효과는 참가자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즉, 스스로의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상상 접촉 후에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에 대해 더 많은 호감과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상상 접촉의 효과는 이성을 볼 때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에 의해서는 조절되었다. 즉 외모를 비교적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상상 접촉을 시행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반면,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경우 상상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듯 상상 접촉 과정에 의해 신체적 매력이 다소 낮은 이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유도되었다는 점은 상상 접촉이 편견의 대상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왔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봉민, 2012; Cameron et al., 2011; Husnu & Crisp, 2010a, 2010b; Stathi & Crisp, 2008; Turner & Crisp, 2010).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성 관계에서의 끌림이라는 맥

락에서도 상상 접촉의 효과가 유의미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상 접촉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라는 특정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Husnu & Crisp, 2010a; Turner & Crisp, 2010).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상 접촉의 긍정적인 효과는 지각자 스스로 생각하는 신체적 매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상 접촉이 맞춤 가설에서 제시하는 경향성(자신의 신체적 매력도와 비슷한 이성에게 끌리기 쉬움)을 넘어서 낭만적 관계에서 외모가 갖는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상상 접촉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특히 상상 접촉은 단지 대상과의 긍정적인 교류를 상상해보는 과정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별다른 신체적, 물질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의 한계로부터도 자유로워 매우 경제성이 높은 전략이다.

한편, 상상 접촉이 갖는 효과는 외모중시 성향에 의해서는 조절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상상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외모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곧 외모중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인상 평가의 기준이 다소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상 평가 맥락에서 대상이 가진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은 수십 년 간 다양한 관련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TV 드라마(노혜

정, 김은이, 2011)나 잡지(홍종필, 이시연, 2005)에 대한 노출이 높을수록 외모중시 성향이 강해진다는 연구결과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앞으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한국문화에 있어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어떤 맥락으로 외모를 다루느냐에 따라 매스 미디어가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현실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는 그 특성상 상상 접촉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상상 접촉이 가능하다면 상상 접촉의 효과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 이상의 누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들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나이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실험의 참여자가 대부분 20대의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상상 접촉의 효과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가 없다. 향후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에서 상상 접촉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는 상상 접촉이 이성에 대한 호감 및 매력 지각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미래 시점에 대상과의 실질적인 접촉 기회와 관련된 데이트 신청 의향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데이트 신청 의향에 대한 상상 접촉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을 뿐, 경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3인칭 시점으로 접촉을 상상하는 것이 1인칭 시점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

라는 연구를 바탕으로(Crisp & Husnu, 2011), 후속 연구에서는 제 3자의 관점에서 상상을 유도한 후 실질적인 접촉 의도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활용된 신체적 매력 및 외모중시 성향은 각각 단일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다중문항과 단일문항 간의 차이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각각의 방식이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단일문항의 경우 활용이 용이하며, 적용 범위가 넓고, 단순한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로부터 염려되는 무성의한 응답 등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거나, 다중문항에 비해 신뢰도, 타당도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김미량, 김재운, 황선환, 2010; 김용숙, 200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신체적 매력(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등 신체적 매력, 외모중시 성향과 관련되는 여타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다각적으로 상상 접촉의 효과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에서 주목한 변인이 신체적 매력이었고, 그에 따라 실험 참여자들에게 이성의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신체적 매력이라는 변인이 오로지 얼굴 한 가지로만 대변된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대상의 신체적 매력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얼굴 뿐 아니라 목소리나 키, 신체 비율, 의복 등 다양한 외부적 단서들이 관여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얼굴이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즉석 데이트(Insko & Wilson, 1977; Sprecher & Duck, 1994)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상 접촉의 효과가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방향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일보 (2014, 4, 1). 외모비판 여고생 아파트서 투신.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315>에서 2015. 11. 26. 자료 얻음.
- 김미량, 김재운, 황선환 (2010). 진지한 여가척도(SLIM)의 단일문항측정 적용검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4), 147-156.
- 김용숙 (2009). 단일 문항 척도의 타당도 조사 - 심부전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기본간호학회지, 16(4), 490-496.
- 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61-70.
- 노혜정, 김은이 (2011). 텔레비전 드라마 노출이 남자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5), 340-365.
-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19-31.
- 오선영 (2013). 청소년의 체형인식도,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3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82-89.
- 윤성욱, 설상철, 황경미 (2003). 종업원의 매력성과 성별이 종업원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관리연구, 8(1), 55-78.
- 이봉민 (2012). 상상 접촉이 다문화 외집단 대

- 상에 대한 집단 괴롭힘 태도에 미치는 효과. *시민교육연구*, 44(1), 109-134.
- 이승연, 박영숙 (2008). 여자 고등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신체만족도, 섭식태도,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6(4), 325-333.
- 이지은, 어성연, 정인경, 김정현 (2012). 서울지역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4), 105-116.
- 임의택 (2011).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외모 지상주의가 수용자의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12(3-4), 257-275.
- 임인숙 (2004). 다이어트의 사회문화적 환경 - 여대생의 외모차별 경험과 대중매체의 몸 이미지 수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8(2), 165-187.
- 임인숙 (2007). 한국 대중가요의 외모차별주의 - 미인찬가에서 육체 찬미와 조롱으로. *한국사회학*, 41(2), 240-270.
- 정명숙, 이규옥 (2009). 초, 중, 고, 대학생의 학교적응: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단일호, 480-481.
- 정익중, 이지연 (2010). 청소년기 비만과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8(2), 60-80.
- 채진영 (2012). 아동 체중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아동의 외모도식과 식습관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15-25.
- 한주원 (2015).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외모관리행동이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24(2), 163-185.
- 홍종필, 이시연 (2005). 잡지 속의 신체 이미지 광고에 대한 노출이 20대 여성의 기분과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 상향 비교, 마른 몸매에 대한 사회규범화, 그리고 외모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4), 72-118.
- Adams, G. R. (1977).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Human Development*, 20(4), 217-239.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Amir, Y.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1(5), 319-342.
- Berscheid, E., Dion, K., Walster, E., & Walster, G. W. (1971). Physical attractiveness and dating choice: A test of the matching hypothesi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2), 173-189.
- Blöte, A. W., Miers, A. C., & Westenberg, P. M. (2015). The role of social performance and physical attractiveness in peer rejection of socially anxious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5(1), 189-200.
- Botwin, M. D.,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Personality and mate preferences: Five factors in mate sele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5(1), 107-136.
- Buss, D. M., & Barnes, M. (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59-570.
-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2), 204-232.
- Callan, M. J., Powell, N. G., & Ellard, J. H. (2007). The consequences of victim physical attractiveness on reactions to injustice: The role of observers' belief in a just world. *Social Justice Research*, 20(4), 433-456.
- Cameron, L., Rutland, A., Brown, R., & Douch, R. (2006). Changing children's intergroup attitudes toward refugees: Testing different models of extended contact. *Child Development*, 77(5), 1208-1219.
- Cameron, L., Rutland, A., Turner, R. N., Holman-Nicolas, R., & Powell, C. (2011). 'Changing attitudes with a little imagination': Imagined contact effects on young children's intergroup bias. *Anale de Psychologia*, 27(3), 708-717.
- Crisp, R. J., & Husnu, S. (2011). Attributional processes underlying imagined contact effect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4(2), 275-287.
- Crisp, R. J., Stathi, S., Turner, R. N., & Husnu, S. (2009). Imagined intergroup contact: Theory, paradigm and practice.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3(1), 1-18.
- Dion, K., Berscheid, E., & Walster, E. (1972).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3), 285-290.
- Dipboye, R. L., Arvey, R. D., & Terpstra, D. E. (1977). Sex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raters and applicants as determinants of resumé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3), 288-294.
- Dixon, J., Durrheim, K., & Tredoux, C. (2005). Beyond the optimal contact strategy: A reality check for the contact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st*, 60(7), 697-711.
- Eagly, A. H., Ashmore, R. D., Makhijani, M. G., & Longo, L. C. (1991). What is beautiful is good, but...: A meta-analytic review of research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 *Psychological Bulletin*, 110(1), 109-128.
- Folkes, V. S. (1982). Forming relationships and the matching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4), 631-636.
- Feingold, A. (1988). Matching for attractiveness in romantic partners and same-sex friends: A meta-analysis and theoretical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4(2), 226-235.
- Feingold, A. (1991). Sex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imilarity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n opposite-sex attrac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2(3), 357-367.
- Gaertner, S. L., Rust, M. C., Dovidio, J. F., Bachman, B. A., & Anastasio, P. A. (1994). The contact hypothesis: The role of a common ingroup identity on reducing intergroup bias. *Small Group Research*, 25(2), 224-249.
- Goldman, W., & Lewis, P. (1977). Beautiful is good: Evidence that the physically attractive are more socially skillfu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2), 125-130.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74(6), 1464-1480.
- Griffin, A. M., & Langlois, J. H. (2006). Stereotype directionality and attractiveness stereotyping: Is beauty good or is ugly bad? *Social Cognition, 24*(2), 187-206.
- Hargreaves, D. A., & Tiggemann, M. (2003). Female "thin ideal" media images and boys' attitudes toward girls. *Sex Roles, 49*(9-10), 539-544.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usnu, S., & Crisp, R. J. (2010a). Elaboration enhances the imagined contact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6), 943-950.
- Husnu, S., & Crisp, R. J. (2010b). Imagined intergroup contact: A new technique for encouraging greater inter-ethnic contact in Cyprus. *Peace and Conflict, 16*(1), 97-108.
- Insko, C. A., & Wilson, M. (1977). Interpersonal attraction as a function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12), 903-911.
-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4). *ISAPS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4*. <http://www.isaps.org/news/isaps-global-statistics>에서 2015, 11, 26 자료 연음.
- Kleck, R. E. & Rubenstein, C. (1975).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ived attitude similarity,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in an opposite-sex encoun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1), 107-114.
- Miller, A. G. (1970). Rol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impression formation. *Psychonomic Science, 19*(4), 241-243.
- Paolini, S., Hewstone, M., Cairns, E., & Voci, A. (2004).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cross-group friendships on judgments of Catholics and Protestants in Northern Ireland: The mediating role of an anxiety-reduction mechan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6), 770-786.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hinney, J. S., Ferguson, D. L., & Tate, J. D. (1997). Intergroup attitude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 causal model. *Child Development, 68*(5), 955-969.
- Price, R. A., & Vandenberg, S. G. (1979). Matching for physical attractiveness in married coup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3), 398-400.
- Seidman, G., & Miller, O. S. (2013). Effects of gender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n visual attention to Facebook profil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6*(1), 20-24.
- Sprecher, S., & Duck, S. (1994). Sweet talk: The importance of perceived communication for romantic and friendship attraction experienced during a get-acquainted da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4), 391-400.
- Sprecher, S., Sullivan, Q., & Hatfield, E. (1994). Mate selection preferences: Gender differences examined in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6),

- 1074-1080.
- Stathi, S., & Crisp, R. J. (2008). Imagining intergroup contact promotes projection to out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4), 943-957.
- Stroebe, W., Insko, C. A., Thompson, V. D., & Layton, B. D. (1971).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ttitude similarity, and sex on various aspect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1), 79-91.
- Taylor, L. S., Fiore, A. T., Mendelsohn, G. A., & Cheshire, C. (2011). "Out of my league": A real-world test of the matching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7), 942-954.
- Turner, R. N., & Crisp, R. J. (2010). Imagining intergroup contact reduces implicit prejud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9*(1), 129-142.
- Turner, R. N., Crisp, R. J., & Lambert, E. (2007). Imagining intergroup contact can improve intergroup attitude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4), 427-441.
- Turner, R. N., Hewstone, M., & Voci, A. (2007). Reducing explicit and implicit outgroup prejudice via direct and extended contact: The mediating role of self-disclosure and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3), 369-388.
- Turner, R. N., & West, K. (2011). Behavioural consequences of imagining intergroup contact with stigmatized outgroup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5*(2), 193-202.
- Walster, E., Aronson, V., Abrahams, D., & Rottman, L. (1966). Importa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d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08-516.
- Wright, S. C., Aron, A., McLaughlin-Volpe, T., & Ropp, S. A. (1997). The extended contact effect: Knowledge of cross-group friendships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73-90.
- 논문 투고일 : 2016. 01. 21
1 차 심사일 : 2016. 02. 04
게재 확정일 : 2016. 04. 18

The Effect of Imagined Contact on Attraction to Unattractive Women

Yong Hoe Heo

Sean S. Kim

Sun W. Park

Korea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has demonstrated that imagined contact is useful to reducing prejudice against minorities (e.g. Turner & Crisp, 2010).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whether imagined contact increases attraction to physically unattractive women, and whether this effect is moderated by perceiver'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appearance orient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Single male participants ($n = 98$) responded to items assessing their physical attractiveness and appearance orientation, and then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conditions. In the imagined contact condition, participants were told to imagine communicating with a physically unattractive woman and come up with some interesting things about her. In the control condition, participants were told to simply imagine a physically unattractive woman. Next, participants saw a picture of a physically unattractive woman and rated her likeability, perceived attractiveness, and willingness to ask her out, which were averaged to form the composite measure of attraction. We found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imagined contact, as expected. This main effect was moderated by appearance orientation, but not by perceivers' physical attractiveness. The effect of imagined contact was significant among those low in appearance orientation, but not among those high in appearance orientation.

Key words : contact theory, imagined contact, physical attractiveness, appearance orientation